

새해 군민의 삶 향상 '올인'

임실군 시무식... '가경취숙(駕輕就熟)' 기해년 힘찬 출발 알리

임실군이 '가경취숙(駕輕就熟)'을 내세우며 2019년 기해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군은 2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갖고, 2019년의 성공적인 군정운영을 다짐하며 당찬 시작을 알렸다.

이날 시무식에서 심 민 군수는 "올해는 민선 7기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중요한 한 해로서 민선 6기에 다져놓은 분야별 성과를 토대로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건설에 매진하자"며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군수는 "경쾌한 수레를 타고 낮은 길을 달린다"는 가경취숙의 자세로 더 단련된 익숙함으로 풍성한 수확을 이루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데 전 공직자가 하나된 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심 군수는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자치역량 강화로 감동행정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며 "올 한해 주요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전 공직자가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군정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임실군이 시무식에서 '가경취숙(駕輕就熟)'을 내세우며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경쟁력강화와 일자리창출 ▲육정호 권역 관광특구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지 실현을 위한 생활복지 체계 구축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주요 시책을 강조하며, 행정력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심 군수는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자치역량 강화로 감동행정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며 "올 한해 주요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전 공직자가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군정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 날 심 민 군수는 시무식에 앞서 박진두 부군수, 국실과원소장들과 함께 성수면 소총사를 찾아 항일독립운동을 위해 떠나신 28의사에게 참배하고 임실군과 군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했다.

올해 임실군의 군정 사자성어인 '가경취숙'은 가벼운 수레를 타고 낮은 길을 달리 듯, 민선 6기 지난 4년간 군수로서 씨를 뿌렸다면, 민선 7기에는 더 단련된 익숙함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겠다는 임실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천년의 역사 속에서 정의로운 순창 만들 터'... 순창군 시무식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예산 5천억 달성, 관광객 5백만명 유치, 인구 4만명 달성이라는 3대 비전과 농촌, 관광, 문화, 교육, 복지, 경제 등 6대 역점분야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순창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가 2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새해 군정비전을 제시했다. 황 군수는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시무식에서 "기해년(己亥年)은 '시시각각 살피고 기미마다 살펴라'는 뜻인 '유시유기(惟時惟幾)'의 뜻을 새겨 혼신간이라도 삼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을 느끼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또한 "올해는 순창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 등장한지 1,000년 하고도 1년



순창군이 2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이 되는 해로, 천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면서 "새천년 앞에 자라나는 후손들이 자랑스런 순창에서 삶을 영위하며, 순창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정을 운영하여 정의로운 순창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는 말로 시무식을 마쳤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대표사이트 3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 획득

남원시는 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포함한 8개 사이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및 고령자가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지침을 준수한 홈페이지에 품질을 인증하는 제

도로, 전문가 심사와 장애인 심사 2개 분야에서 남원시 HTML5 기반으로 구축된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되고 있으며, 웹 접근성 방지를 위한 유지를 위해 관리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친절하고 살맛나는 천년남원 조성"

이환주 남원시장 신년 다짐



2일 이환주 남원시장은 2층 회의실에서 2019년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남원시의 새해 시정목표를 '친절하고 살맛나는 천년남원'으로 정하였으며, 평이근민(平易近民:편안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간다)의 자세로 시민 섬김?공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시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민선7기는 남원발전의 큰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올해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남원시대로 힘차게 발돋움하기 위해 거침없이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립공공의료대학 유치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공약한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문화관광, 교육복지 등 남원의 현안사업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고 친절·소통행정으로 시민이 바라는, 시민이 중심인 천년남원으로 다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올 시정방향에 대해 핵심키워드는 기업유치 기반 마련 및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이라며, 이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및 화장품산업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여 양질의 기업유치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고, 동

부권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동부권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 산업화에서는 시내권 관광과 산악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관광발전 투트랙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기를 맞아 관광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것과 관광부원 일대에 거러예술장터 및 요천변 경관 조명을 만드는 남원 전통가를 계획 중에 있으며, 합파우유원지에는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으로 시립미술관, 소리체험관, 도예촌과 함께 전통과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사회가 건강한 도시라는 변함없는 신념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 살맛나는 남원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남원농산물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업환경도 개선하여 농업경쟁력을 더욱 끌어 올리고, 최첨단 ICT활용 가축방역 인프라 구축, 농촌인력 지원사업단 운영 등으로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남원발전은 시민들의 관심, 조언, 참여, 협력이 더해질 때 가능하다"며, 실력과 지식을 갖추고 지혜를 모아 호시우보(虎視牛步)의 마음으로 살맛나는 천년남원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민원과 행안부·국토부 최우수 기관 표창 받아

남원시가 지난해 매우 친절함 남원시 만들기 애착선 결과 민원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다.

행안부의 수상은 2018년도 민원서비스 향상은 물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이용률 실적도 2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도로 민원인이 시청,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신분을 확인 후 서명용 도장을 기재하면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최우수기관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사업추진, 세계적지계 변화사업 추진 사항 전반, 특수시책 및 수법사례, 정책 기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사업추진, 사업지구마다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명절 연휴기간 민원상담반을 가동하는 등 다양한 특수시책과 수법사례를 발굴 추진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신기술 활용 지적재조사사업 실험지구 참여로 정책기여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완철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친절을 최우선시는 자세로 제도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목천인재숙, 명문대 합격 신화

순창군 목천인재숙이 올해도 명문대 합격의 신화를 이어갔다.

군에 따르면 2019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 서울대1명(수의예), 연세대1명(사회복지), 고려대3명(경영, 지리교육, 화성공), 대구교대, 한양대, 중앙대, 홍익대 등 31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지난해에도 서울대 의예과 등 3명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으며 매년 의과대학(의, 치, 한의), 사관학교 합격생도 배출해 내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지역 전체적으로는 군민들이 교육문제로 인해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을 막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크게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 군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목천인재숙에 입학하기 위해 순창지역으로 전입하고 있는 인구도 상당수 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드물게 순창의 대학 진학 실적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면서 "대도시 못지않은 교육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교육1번지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